

■ 업데이트 : 2009.09.21 22:40:45

10월 출범 대전문화재단 “이사회 다시 구성” 목소리

10월 출범을 앞둔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.

시민들은 지역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'일방적인 관 주도'뿐 아니라 타 지역 문화재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사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.

21일 인천 등 타 지역 문화재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화재단의 이사는 10여명 선으로,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30명에 이르고 순수 이사만 26명을 선임한 대전문화재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 타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 방식과 숫자에 대해 대부분 '이해하기 어렵다'는 반응이다.

"대부분 재단법인의 이사 수가 15명 안팎인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, 대전문화재단처럼 지나치게 이사 수를 많이 할 경우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"이라고 이들은 설명한다. 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"이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게 구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"며 "명분이 없는 거대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방향을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크다"고 지적했다.

대전=정재학 기자